

오늘 영령 부활제...5·18 행사 마무리

광주서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의 장 ‘레드페스타’ 등
지난 주말 전국·해외 각지 다채로운 기념행사 성료

올해로 39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27일 광주 옛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부활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무대에서 오월영령 추모를 위한 ‘부활제’를 진행한다.

1부 오월 영령들을 위한 제례 및 헌화를 시작으로 2부에는 80년 5월27일 도청을 지키다 산화해 가신 오월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부활의 결의를 다지는 추모 발인과 추모 공연 등이 다양하게 꾸며진다. 3부는 5·18민주광장에서 나눔 행사를 치러진다.

부활제에 앞서 주말 기간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39년 전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 25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인 ‘5·18 REDFESTA’(이하 레드페스타)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국 청소년기관 및 학교 등 50여개의 단체와 청소년, 시민 등 7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역사와식과 민주적 함양, 10대 청소년들의 고민과 사회적 이슈가 소통되는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80년 5월의 기억과 현재 청소년들의 이슈를 표현·공유한 참여형 부스 ‘이슈 놀이터’가 마련됐고,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상황 재연극, ‘님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과 청소년 금남로 성회 등이 펼쳐졌다.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5·18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들불 열사 추도식과 들불상 수상자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로 14번째인 들불상은 이른바 ‘김용균 법’을 끌어내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위한 ‘부활제’를 진행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5월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5·18 레드페스타(REDFESTA)’가 지난 2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민주·인권·평화·나눔 행사로 열렸다. 이날 진행된 ‘5·18레드페스타’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로 꾸며진 가운데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고 있다.

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한 고(故) 김영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수상했다.

이외에 전국 5월 창작가요제와 5·18문학상 시상식 등 여러 행사가 이어졌으며, 목포와 무안에서도 5·18 사적지 기행 및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5·18을 기억하는 마음은 한반도를 넘어 해외에도 이어졌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재유럽5·18민주화운동협의회 주최로 39주년 재유럽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24일 미국 LA에선 LA민족학교 주최로 5·18민주화운동 LA기념행사가 마련됐다.

올해 5·18기념행사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미주, 유럽 등 해외까지 동시다발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기존 호남향우회에서 다른 지역 향우회 등으로까지 확대돼 세계화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5·18 행사와 관계자는 “올해 5·18 기념행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등 오월현안 해결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전국화·세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했다”면서 “내년 40주년에도 5·18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변호사 영장 반려

검찰 “증거 등 혐의 보장 필요”

광주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모 부서 팀장과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정보 유출 사건(가칭)’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 광주청 A팀장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B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 등에 대한 혐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다른 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 체포됐지만, 체포기한 48시간을 넘겨 석방됐다.

경찰은 A팀장이 수사 상황을 B변호사 측에게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다시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수사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펼쳐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송지기자

30도 웃도는 폭염에 車 내 배터리서 불길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차량에 놓여 있던 낡은 배터리가 자연발화 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50분께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광주 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대원은 승합

차 운전석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차량 앞 유리를 깨고 불을 끄었다.

과학수사반 감식결과, 불은 차량 내부에 충전하기 위해 놓아둔 낡은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30도를 웃도는 한낮 폭염에 차량 내부 온도가 치솟으면서 배터리가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송지기자

“아파트 임원 겸직 예비군 동대장 징계 정당”

군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가 제3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인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4-6월 전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

했다.

그는 활동비 55만원을 지급받았고 동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 요청으로 불리며 자원위원 활동을 하면서 출장수당을 한차례 받았다.

2017년 1월에는 다른 주민 2명에게 “관리소장이 무능하다”고 헐뜯고 2월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이) 일도 안 했는데 400만원 가까이 받아갔으니 월급 토해 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소속 부대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무 위반, 품위유지위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오송지기자

“택시비 이게 말이 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조모(26·여)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국모(28)씨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핸드폰으로 국씨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리터기에 찍힌 택시요금에 자신이 생각한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면서 “최근 인상된 택시비와 새벽시간 활주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사에게 따져서야 되겠냐”고 호통. /최환준기자

해남서 주행 중 BMW 차량 화재

BMW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23분께 해남군 송지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A(42)씨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은 전소했다. 화재 직전 A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는 “조수석 아래에서 연기가 나 교차로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2018년식 520d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남=김병용기자

사업가 납치·살해 가담 조폭 친동생·하수인 구속

경찰, 부두목 출국금지 조치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이 주도한 50대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됐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홍모(6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씨의 친동

생(58)도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A(56·부동산업)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로 경기도 양주시청 부근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간에 조씨의 친동생이 운전해 광주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에 들른 사실이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A

씨) 나이가 어리면 반말을 하길래 발로 찼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홍씨가 시신 유기 직후 근처 모텔로 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는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살인을 저지르고 조씨를 도피시키기 위한 전략까지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국제PJ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알려진 조씨는 13년 전인 2006년에도 광주에서 ‘건설 사주 납치사건’을 주도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송지기자

오천경매

투자에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임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금매전문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썬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경매투자자

오천경매 010-3605-5000

CMYK

+